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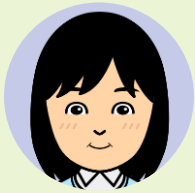
What's Up, OITA!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인회, 유학생 OB, 오이타현 관계자 여러분께 오이타의 "지금"을 전해 드립니다

2026년도 국제정책과 직원 소개

잘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국제정책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과장
마쓰키 쿄코

국제정책과 과장,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공생 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니멀 라이프

최근에 빠져 있는 것들



여권담당팀
참사 (총괄)
야마다 가르히사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 팀 인재 육성

스도쿠



여권담당팀
주임
노지 카나에

담당 업무

- 여권 심사 및 발송
- 여권 업무 위탁
- 여권 팀 예산 담당

여행



해외전략팀
주간 (총괄)
아다치 후미토시

담당 업무

- 해외 전략 추진 총괄
- 과 인재 육성

영어 회화



해외전략팀
부주간
오카와라 다이사쿠

담당 업무

- 해외전략 추진
- 해외 프로모션 (미국) 담당

딸과 함께 놀기



해외전략팀
주사보
히가와 사쿠라

담당 업무

- 예산/결산/감사 담당
- 일본어 파트너스 담당
- JET프로그램

두쫌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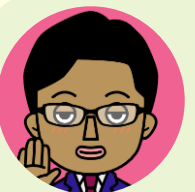


해외전략팀
주사보
에구마 하루나

담당 업무

- 일본어 파트너스 담당
- 서무/홍보/HP운영 담당

향수 수집



다문화공생추진팀
주간 (총괄)
난바 가르히사

담당 업무

- 팀 내 업무 총괄 및 조정
- 과 인재 육성
- 영어 통역

독서



다문화공생추진팀
주사
히라이 히로토

담당 업무

- 다문화공생 사업 담당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담당

호빵맨



다문화공생추진팀
주임
후지카와 미사키

담당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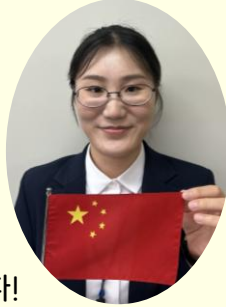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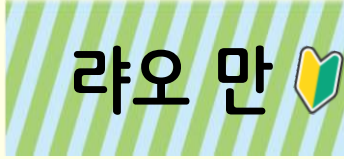
- 유학생 취학/기업 지원 담당
- 국제교류단체 관련 담당

향신료 요리

부임 인사

올해 새롭게 부임하게 된 국제교류원을 소개합니다!

중국 국제교류원



출신지: 중국 (장시성)
취미·특기: 축제·산책

따자하오(大家好)!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오이타현청에서 중국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게 된 라오 만입니다. 여러분은 시인 이백의 "망여산폭포"를 아시나요? 이 시는 제 고향인 중국의 장시성 주장시에 위치한 루산(廬山)의 아름다운 폭포를 노래한 작품입니다. 주장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대학 시절을 대련시에서 보냈고, 졸업 후에는 심천시에서 2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일본의 유명한 국민 아이돌 그룹 때문이었습니다. 그 그룹을 좋아하게 되면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의 전통 문화, 특히 지역마다 이어져 온 전통 행사와 민속 문화에 강하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알게 된 일본의 축제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싶어 일본의 산간 지역 마을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의 지방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자연 환경과 역사가 풍부한 오이타현에서 국제교류원으로 활동하게 된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이타에는 수많은 온천을 비롯해 맛있는 지역 술과 가라아게 등 매력이 가득합니다. 어느새 저도 "오이타가 정말 좋다!"고 마음속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이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마치 오이타 현민처럼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오이타를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이 지역에 녹아들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류와 체험을 통해 여러분께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을 전달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빠져 있는 것들



로사 부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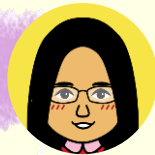


그림 그리기

영어 통역/번역/감수 업무 및 제트 프로그램 어드바이저(PA) 등



알리시아나 린



온천 탐방

영어 통역/번역/감수 업무 및 국제인재육성연수 관련 등



안수영



뉴스 시청

한국어 통역/번역/감수 업무 및 국제인재육성연수 관련 등

News from Usuki City

우스키시 소식

우스키 시
홈페이지



창의 도시로서 세계에 알려지는 중!

2021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식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며,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다음세대와 이어져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SUKI
CITY OF GASTRONOMY



Member of
the Creative Cities Network



리프데호 추도식에서의 교류사업
-네덜란드·영국 총영사 초대-



진귀한 혼젠 요리 (관혼상제)



검소함에서 탄생한 향토요리



좋은 물이 키워낸 발효·양조 문화



친환경 농업 증진

News from Tsukumi City

쓰쿠미시 소식

쓰쿠미시
홈페이지



바다와 귤의 마을 · 쓰쿠미에서 맛보는 로컬푸드



쓰쿠미 명물

휴가 덮밥

참치의 붉은 살에 간장·설탕 등을 넣어 만든 특제 참깨 소스를 더한 쓰쿠미시 호토지마의 향토 요리입니다.



가을~겨울이 제철!

쓰쿠미 무늬 오징어

"모이카"는 무늬 오징어를 뜻합니다. 독특한 단맛과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달콤한 과즙 가득!

쓰쿠미 귤

햇살을 가득 받으며 쓰쿠미의 자연 속에서 정성껏 길러져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좋고 신선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News from Oita City

오이타시 소식

오이타시 국제과
인스타그램



오이타시에서는 다문화공생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 두 가지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만들면서 이야기하자! 다문화교류키친



일본인 시민과 외국인 시민이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며 요리하는 것을 통해 교류하는 이벤트입니다.

※2026년도 참가자 모집은 종료되었습니다

월드 페스타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보고 각양각색의 국제 스테이지 공연을 즐기며, 하루 동안 세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일시 : 2026년 10월 31일 (토) 10:30~15:30
장소 : 토요타 카롤라 오이타 축제 광장

News from Hiji Town

히지정 소식



모험가 페르낭 멘데스 핀투 (Fernam Mendez Pinto)상이 성하 공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작년 9월 히지정은 포르투갈 몬테모르오벨류(Montemor-o-Velho)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호의 증표로 몬테모르오벨류시 출신의 모험가 페르낭 멘데스 핀투 동상이 기증되었으며, 3월 20일에는 아나 마리아 시장 대리인, 누누 산타 히타 보좌관, 질베르투 제로니무 포르투갈 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아나 마리아 시장 대리인은 "핀투 동상은 역사 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히지정과도 모험가 핀투의 역사와 발자취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서 우정을 쌓아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막식 후에는 그랜드 머큐어 벅푸만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기념식이 열려 양 도시 간 우정을 돈독히 다졌습니다. 또한 [핀투와 히지]를 주제로 한 기념 문화 공연회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페르낭 멘데스 핀투와 히지정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사시

~힐링의 하루~

동광사 오백나한



영국 국제교류원
로사 부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중교통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별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요.
도코지 (동광사)는 힐링의 하루를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자연 속에서 오백 나한을 마주하며 가까운 지인과 닮은 얼굴을 찾아보는 소소한 재미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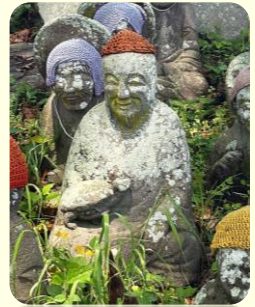
나한이란?

나한(羅漢)은 본래 "생사를 초월하여 더 이상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성자" 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광사의 나한들은 표정이 풍부해 엄숙한 성자보다는 현세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근함이 느껴지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의 나한은 15세기 교쿠호도린(玉峰道琳) 큰스님이 히지정의 석공에게 부탁한 것으로, 마치 돌에 깃든 영혼이 이끄는 대로 조각한 듯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랑받고 있는 나한

문을 지나니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했습니다. 다양한 무늬의 사랑스러운 모자를 쓴 나한들이 줄지어 서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모자는 절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지인과 닮았다"며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추위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좋아하는 옷을 입혀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지스님의 추천



절의 뒤편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은 십육나한과 나라의 야쿠시지 절(藥師寺)를 본떠 만든 불족적(仏足跡) 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것이므로 방문 시에는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장소



가까이 흐르는 야칸강을 따라 산책하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옵니다. 강가에는 작은 계들도 볼 수 있어 어린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방문객들이 나한을 위해 직접 모자를 준비해 씌어 주는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닮은 나한을 발견했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진으로는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므로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0-1



언덕 위의 오아시스 오이타시 미술관

미국 국제교류원
알리시애나 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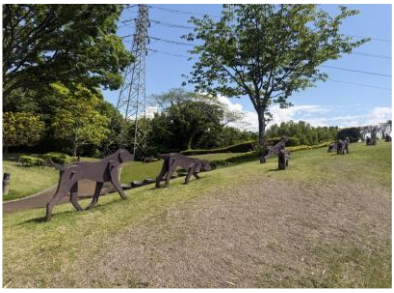
오이타역 남쪽에 위치한 오이타시 미술관은 버스로 약 6분 거리에 있으며,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오아시스입니다.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어 공기가 맑고,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부담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 코너, 중앙 정원, 전망대 등은 전시를 관람하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잘 정비된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내에는 '숨겨진'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여유롭게 둘러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이 멋진 미술관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는 약 3,000점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오이타현 출신 예술가인 다카야마 다쓰오와 후쿠다 헤이하치로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4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대나무 작품이 전시된 곳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나무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가가쿠이 히로시의 세계전]으로, 그림책 작가로서의 활약과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그의 헌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작품 시리즈 팬으로서 가가쿠이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미술관의 왼편에는 차일드하우스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코끼리 동상과 다양한 강아지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아지 동상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세요!
차일드하우스 안에는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벤트나 각종 교실로도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훌륭한 방문지입니다. 오이타 시내가 360도로 내려다보이는 전망대도 놓치지 마세요.

오이타시 미술관
오이타시 우에노 865번지
개관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30분)
관람료: 일반 440엔, 고등학생 22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스탬프를 다 모으면 근사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20일까지)



오이타 캔버스
「오이타 캔버스」전용 정류장
요금: 성인 (중학생 이상) 200엔
오이타역 우에노 노 모리구치에서 약 6분



오이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호버 여행!

수륙양용 호버크래프트로 벳푸만 일주

중국 국제교류원
랴오 만

오이타에 온 후 동료에게서 "여행객용 호버 크래프트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오이타에서만 탈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호버 크래프트를 타고 벳푸만 일주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호버크래프트 (이하 '호버')는 1971년부터 약 38년 동안 오이타의 바다를 달렸지만, 2009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싣고 바다를 누비던 호버가 돌아온 만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치 구름 위로 이어지는 듯한 하얗고 긴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면, 고요히 정박해 있는 호버와 서오이타항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터미널 내에서는 이벤트나 호버에 관한 기획전도 개최됩니다.



2009년 호버 최종편 출항 모습
(사진 제공:호버 계승 모임)

바다에서 바라본 벳푸만



귀항 후에는 매번 정성껏
청소 및 정비를 합니다

선체는 별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마치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떠올리는 미래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호버에 비해 주행 소음이나 흔들림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이타 공항 주유편도 운항하고 있습니다. 넓은 옥상 활주로에서 호버 크래프트만의 박력 넘치는 드리프트 주행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신나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출발



탑승 전에 "소음과 흔들림이 심하다" 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바다가 잔잔해서 상상 이상으로 쾌적했습니다. 특히 출항을 앞두고 에어쿠션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에는 설렘이 가득 차올라, 다시 또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설렘과 많은 사람들의 호버에 대한 애정을 경험하고 나서, 앞으로 저도 호버를 응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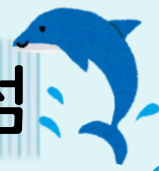


호버 드라이브
홈페이지



쓰쿠미 시

쓰쿠미 돌고래 섬



한국국제교류원
안수영



//마리의 큰돌고래가 사는 곳 🐬

오이타현의 풍부한 자연환경이 빛나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매일 아침 건강 상태 점검을 마친 돌고래들이 활기차게 헤엄치고 있다. 마치 사람처럼 웃고 장난치며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 모습에서 친근함이 느껴진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돌고래들과 교감하며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진다. 뒤편의 산수섬 산책도 추천!



돌고래 단군의 볼보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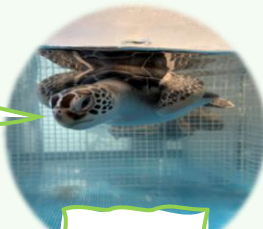
돌고래와의 교감은 물론, 국내 유일의 "돌고래 푸싱" 체험까지!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돌고래들과 보내는 여유로운 힐링 시간 🐬

돌고래 퍼포먼스도!



펭귄과 물개도 만날 수 있는!



바다거북



주운 나무의 변신

매력 포인트! 🐬

바다거북 보호와 비치클린 활동에서 주운 나무에 식물을 심어 재활용 하는 등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점!

[운영시간] 10:00~16:00

[주소] 쓰쿠미시 요우라 2218-10

[입장료] 성인 1300엔 소인 800엔 유아 650엔

※자세한 체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랑스러운 돌고래와 바다 생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오이타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설. 싱그러움 미소와 함께 정성스럽게 바다 생물들을 돌보는 스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했다. 산의 초록빛과 바다의 푸른빛이 만나는 곳에서 오이타현의 오아시스를 찾았다.



From our Reporters

국제교류원 소식



건강 제일



영국 국제교류원
로사 부텔



오이타의 공기는 깨끗하고 초록이 무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 암 연구회 주최의 "플랭크 챌린지"라는 모금 스포츠 행사에 참가해 한 달 동안 매일 2분 플랭크에 도전했습니다. 플랭크는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머리부터 발등까지 일직선으로 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으로 전신 근육을 강화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서 체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큰 보람을 얻은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챌린지는 일상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검도나 배트민턴, 2분간의 플랭크 등으로 자투리 시간에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강 제일" 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직장인이 되어 오이타에서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탑승 데뷔



미국 국제교류원
알리시애나 린



5월에 벵푸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야간 여객선을 처음으로 탔습니다. 퇴근 후 서둘러 항구로 향해 승선한 후, 가장 먼저 석식 뷔페로 갔습니다. 사시미와 초콜릿 분수 등 다양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장 기대했던 대욕장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낸 뒤 넓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객실은 조용했고 텔레비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텔레비전이 나오는 것에 깜짝 놀라 마치 나만의 영화관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 아침에는 조식 뷔페를 즐기면서 바다를 조망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오사카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은 전철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시내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간사이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한 번 여객선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에서 느낀 지역의 정



중국 국제교류원
랴오 만



저는 축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오이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루 빨리 이 지역에 녹아들고 싶은 마음에 오이타 시내에서 열린 노사카 신사의 춘기대제를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다양한 축제를 접해왔지만, 축제수레(山車)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과 징 소리에 맞춰 "으쌔, 으쌔!" 하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는 모습에 지역 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에서 오신 한 분과 대화 할 때, 본인은 동아리 취재를 계기로 춘기대제와 인연이 생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의 축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다양한 축제를 즐기며, 오이타에서의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운 이유



한국 국제교류원
안수영



늘 혼자 출근하던 저에게 드디어 동행자가 생겼습니다!

브라질 친구와 직장이 가깝기도 해서 함께 출근하자고 제안했는데, 흔쾌히 받아주어 매일 아침 같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출근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친구와 하루하루의 일상에 대해 마음껏 웃으며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직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 친구와는 대학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로, 같은 직장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소중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4월부터 시작된 직장인 2년 차 생활도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누군가와 함께 출근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 줄이야! 그야말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저 역시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What's Up, OITA!

가 드리는 공지

국제교류원을 파견합니다!

국제정책과에서는 **국제교류원 (CIR)**을 강사로 파견하여 각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함께 즐겁게 배워보실래요?

파견 가능한 국제교류원: 영국, 미국, 중국, 한국

개요

- 대상 오이타 현 내 학교 · 지역단체 · 공민관 등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상담 가능)
- 내용 국제교류원들의 출신 국가의 문화 · 관광 · 음식 · 놀이 등을 소개!
- 비용 파견비용 무료! (교통비 및 재료비는 의뢰측 부담)

신청방법

- ① 우선은 전화로 상담!
- ② 일정과 내용을 확인 한 후, 한 달 전까지 신청서 제출
- ③ 국제교류원과 메일 등으로 사전 조율
- ④ 당일 방문한 국제 교류원과 즐겁게 배워봅시다!

주의사항

파견일시와 내용 등에 따라, 파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국제교류원의 파견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의 활동을 전 세계에 소개해보지 않으시겠어요 ?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오이타현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현인회 활동(친목회), 유학생 OB의 근황 등을 보내주세요!
(양식 자유)

[기사제공 / 문의처]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담당: 에구마, 나카야마

[메일] a10140@pref.oita.lg.jp

모집 중!

